

전남대 의예과 405점·조선대 의예과 403점

광주 고3 수능 실재점...지원 가능 대학은

광주지역 고3 수험생의 2025학년도 수능 실재점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전남대 의치약 계열은 396~405점, 인문계열은 350점 안팎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선대 의치약 계열은 395~403점, 광주교대는 356점,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원가능 점수는 387점대로 분석됐다.

광주교육청은 9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재점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광주 고3 재학생 1만여명의 점수를 분석한 자료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진로진학지원단 진학정보분석팀의 분석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 3개 영역 표준점수 600점 만점 기준(영어·한국사 제외)

광주교대 356점·GIST 387점

고려대·연세대 인문계열 387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393점

전남대 영어교육과 358점

조선대 간호학과 350점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은 393점·자연계열은 395점 안팎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자연계열은 서울대 응시기준에 충족한 학생 표본에 따른 자료다.

고려대·연세대 인문계열은 387점·자연계열은 385점 안팎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교육대학교 지원가능 점수는 356점 안팎,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원가능 점수는 387점 안팎,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393점 정도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남대 인문계열은 영어교육과 358점·국어교육과 355점·행정학과 347점·경영학부는 353점·정치외교학과 340점·국어국문학과 337점 등이며, 인문계열 지원가능 점수는 328점 안팎이다.

자연계열 경우 의학과(일반) 405점·의학과(지역) 403점·치의학전문대학원(지역) 400점·약학부(지역) 398점·수의예과 396점·전기공학과 375점·간호학과(지역) 353점·수학과 354점으로, 자연계열 지원 가능 점수는 수학 지정 학과 341점·수학 미지정 학과는 335점 안팎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 자연계열은 의예과(일반) 403점·의예과(지역) 401점·치의예과(지역) 398점·약학과(지역) 395점·간호학과(지역) 350점 안팎으로 봤다. 정시 선발 비율은 3.2%로 정시 지원 때 이월 인원 확인이 중요하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 등은 올해 수능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쉽게 출제됐지만, 전반적으로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했다.

국어와 수학 모두 영역별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등급 구분 표준점수가 131점이었다. 영어의 경우 1등급 비율은 전년도(4.71%)에 비해 증가한 6.22%였으며, 1등급과 2등급 누적 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했다.

영역별 난이도를 판단할 수 있는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언어와매체의 경우 139점으로 전년도

150점보다 11점 낮아졌으며, 국어 화법과작문은 136점으로 전년도 146점보다 10점 하락했다.

수학의 경우 미적분 140점, 기하 139점, 확률과 통계 135점으로 전년도 수능보다 다소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탐구는 과목에 따라 표준점수 최고점이 66~77점, 과학탐구는 과목에 따라 표준점수 최고점이 65~73점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 정훈장 장학관은 "이번 분석 결과는 2025학년도 정시 모집요강에 의한 것이며, 수시 이월 인원 발표 때 정원이 변경될 수 있다. 배치기준점수는 표준점수에 따른 단순 지원 가능 기준 점수인 만큼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비상사태 발생 땀 이렇게 9일 광주시 북구청 지하민방위 비축물자 창고에서 직원들이 비상사태 시 대비태세 구축을 위해 민방위 장비를 검열하고 있다. /나영주 기자 mjna@kwagju.co.kr

“대광·서진여고 컨테이너 설치로 통학 방해 사태 방지 흥복학원 이사회 전면 교체해야”

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들이 대광여고와 서진여고 주요 통학로에 대형 컨테이너가 설치된 것과 관련해 “사태를 방지할 흥복학원 이사회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는 9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대광여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연대는 “흥복학원 이사회는 부동산 개발업체가 통학로에 대해 토지 인도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대형 컨테이너를 설치할 때까지 방치했다”며 “학교법인 비리로 2015년부터 파견된 관선 이사들이 학생 안전보다 전 이사장의 눈치만 본 결과”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학생들은 이미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등·하교 시간 병목현상, 사각지대 발생으로 안전사고 위험도 큰 상태”라며 “통학로가 경사로인 만큼 겨울철 땅이 얼면 위험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같은 사태는 전 흥복학원 이사장의 사학비리가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적극적으로 문

제를 해결하지 않은 우유부단한 흥복학원 현 이사진과 무심한 광주시교육청 모두 책임이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흥복학원 임시이사 전원을 즉시교체하고 흥복학원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흥복학원 임시이사회의는 학교정상화를 위해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결을 위해 교육청 등 여러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며 “13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조속한 학교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흥복학원 이사장의 세금 체납으로 공매처분된 토지를 취득한 부동산 개발업체는 지난달 16일부터 대광·서진여고 통학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여러분이 겪는 통학로 불편 상황은 통학로 인도소송을 패소하고도 그 문제를 5년간 방치하고 토지교환결의마저 철회해버린 흥복학원 관선이사과 광주시교육청의 책임입니다”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공의 모집 마감일인데... 10개월째 돌아오지는 않는 그들

지원자 전남대병원 2명·조선대병원 0명...서울 '빅5'도 한자릿수

2025년도 상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마감일인 9일 광주·전남 수련병원 지원자가 2명에 그쳤다.

의정감등으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10개월째 복귀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9일 광주·전남 수련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마감인 내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자가 전남대병원 2명, 조선대병원 0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의료현장을 떠났지만 내년 초에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전공의 모집(4월) 하루 전인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인해 그나마 복귀의사를 가지고 있던 전공의들도 계획을 변경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48시간 복귀 포고령이 그나마 있던 전공의 복귀 가능성마저 없앴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수련평가위원회는 지난 4일부

터 이날 오후 5시까지 내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359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지만 병원별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그치는 등 지원율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인 '빅5' 병원 지원자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는 것이 지역 상급병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편,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은 15일 진행되고 17~18일 면접을 통해 19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인턴의 경우 의사 국가시험 이후인 내년 1월부터 선발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방변호사회 하재욱 신임 회장 선출

광주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으로 하재욱(52·사법연수원 30기·사진) 변호사가 선출됐다.

하 신임 회장은 9일 회장 선거에서 제 58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1월 21일로 예정된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2년이다.

이번 선거는 1948년 광주지방변호사가 창설한 이래 1998년(제44대)과 2004년(제48대)에 이어 20년만에 3번째 경선으로 치뤄졌다.

그는 “회원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여성회원과 청년회원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겠다”며 “SI법률서비스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활기찬 변호사회

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 신임 회장은 광주 출신으로 송원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을 거쳐 검찰에서 근무했다.

한편, 변호사회는 신임 감사로 장은범(46·연시 4회)·권오성(50·연수원 28기) 변호사를 선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